

| | | | | |
|--|--|--|-----|--|
| 제 목 | 국 문 | 당뇨병 환자들의 질병행위에 대한 관찰 | | |
| | 영 문 | An Observation on Illness Behavior of Diabetics | | |
| 저 자 및 소 속 | 국 문 | 김순미 ¹⁾ , 우선옥 ²⁾ , 한달선 ²⁾ 1) 경북대학교 고고인류학과 2) 한림의대 사회의학교실 | | |
| | 영 문 | Soon Mee Kim ¹⁾ , Sun Ok Woo ²⁾ , Dal Sun Han ²⁾ 1) Department of Archaeology and Anthropology,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2) Department of Social Medicine, Medical College, Hallym University | | |
| 분 야 | 보건관리 | 발 표 자 | 김순미 | |
| 발표 형식 | 구연 | 발표 시간 | 15분 | |
| 진행 상황 | 연구완료 (○), 연구중 () → 완료 예정 시기 : 년 월 | | | |
| <p>1. 연구 목적</p> <p>경제사회적 변동과 더불어 질병양상도 달라져서 만성퇴행성 질환이 사망과 이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졌다. 그러므로 지역보건사업의 대상에 이들 질환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적지 않다. 당뇨병은 고혈압과 더불어 지역단위 관리사업이 필요한 대표적 질환으로 꼽히고 있다. 환자교육과 추적관리가 지역단위 사업에서는 주요수단에 속하므로 환자들의 이러한 사업에서는 의식과 행위, 즉 질병행위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당뇨병환자들의 질병행위를 파악하여 화천지역의 당뇨병 관리사업에 도움을 줄 목적으로 이 연구를 실시하였다.</p> <p>2. 연구 방법</p> <p>한림대학교 사회의학연구소는 강원도 화천지역에서 보건소망을 통하여 만성퇴행성 질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실천적으로 개발하려는 노력을 수년간 전개하였다. 이러한 사업활동의 하나로 연구자는 인류학적 참여관찰과 면접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군보건의료원에서 실시한 당뇨교실을 참관하고 당뇨병 환자들의 자조모임을 조직, 운영하면서 참석한 환자들의 상태를 파악한 뒤, 질병일화를 따라 추적되는 의미있는 사건들을 중심으로 생애사를 구성하고, 환자들이 이해하는 당뇨병의 내용과 자신이 환자임을 알고 난 후에 실행에 옮긴 대책을 파악하였다.</p> | | | | |

3. 연구결과

환자들은 의사에게서 당뇨병에 대한 설명을 듣지만, 결국 이들이 이해하는 것은 문화적인 의미와 관련되었다. 우연히, 혹은 몸의 이상을 느끼고 병원을 방문하여 자신이 당뇨병에 걸렸음을 확인하지만, 환자들은 당뇨병의 실체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그리고 어떻게 자신의 질병을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방황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당뇨병관리를 위하여 일상생활을 재배열하는 방법을 이해하고 내면화하여 실천하기까지는 여러 단계를 거쳐야 했다. 병원이용과 의사와의 접촉에서 부정적인 경험을 한 환자들이 당뇨관리를 중단하거나 민간요법을 구하고, 혹은 단기적인 한약에 의존하는 다면적인 치료행위를 보이는 경우가 많았다.

4. 고찰

분석의 결과는 지역단위 당뇨병 관리사업의 중요성을 재확인해 줄 뿐만 아니라, 구체적 접근방안에 대해서도 시사하는 점이 적지 않았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당뇨병 이외의 다른 만성퇴행성 질환의 관리를 위한 지역보건사업에도 적용될 것으로 믿는다. 그리고 인류학적 참여관찰, 사례연구가 환자들을 깊이 이해하고, 그럼으로써 질병관리사업을 효과적으로 계획하고, 시행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